

No.12

Japan Weekly Digest

2009. 12. 7 ~ 12. 13



사단법인 **한일경제협회**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■ CONTENTS

□ 금주의 이슈

-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 방한
- 2차전지, 산요·파나소닉 전격 합병
- 스즈키, 폭스바겐과 자본 제휴 합의
- 日, 달에 무인기지 설치
- 20~30대의 60% “결혼해도 아이 필요 없다”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외국인 회사채투자 비과세 혜택
-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 50%대로 하향
- 사무차관제도 폐지 추진
- 여당의원, 일등석 금지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산업계 미국, 중국의 온실가스 삭감목표 인상 요구
- 중소기업 법인세 재검토
- 긴급경제대책회의서 경산성관련 추경 결의
- 내각부, 종합과학기술회의 개최
- 특허제도연구회 보고서 발간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‘경제대책을 위한 추경 7.2조엔 편성’, 일본경제신문

* 자료작성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일본지식정보센터

Japan Weekly Digest (No.12)

(사)한일경제협회
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www.kje.or.kr
www.kjc.or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
112-15 한일재단빌딩

TEL/02-3014-9888
02-3014-9898

FAX/02-3014-9899
02-3014-9800

□ 금주의 이슈

○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 방한 (12/11)

- 일본 집권 민주당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이 12월 11일 방한
 - 조훈현 9단과 4점 접바둑 7집승
 - 국민대에서 ‘새로운 한일관계와 그 역할을 담당할 지도자 육성’ 주제로 강연

○ 2차전지, 산요·파나소닉 전격 합병

- 세계 6위로 추락한 파나소닉은 최근 업계 1위인 산요를 인수, 반격에 나섬
 - 2000년 세계 2차전지 시장 점유율은 1위 산요(24.5%), 2위 소니(20.9%), 3위 파나소닉(19.1%), 4위 SGS(8.8%), 5위 맥셀(3.3%)이었으나 2008년 삼성SDI가 점유율 15%로 소니를 제치고 2위, LG화학은 6.8%로 5위에 오름
 - 일본 점유율이 30%포인트 가량 하락한 반면 지난 8년간 한국기업들의 점유율은 24%로 상승한 것에 대해 일본기업끼리 합병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추월을 막으려는 의도

○ 스즈키, 폭스바겐과 제휴 합의

- 제품 모델의 공유 및 생산체제의 상호 보완, 환경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포괄적 제휴를하기로 합의, 폭스바겐은 스즈키의 발행주식 중 19.9%를 취득 예정

○ 日, 달에 무인기지 설치

- 일본이 본격적인 유인 달 탐사 준비 개시, 4,000억엔 투입하여 2020년까지는 달 남극에 로봇용 무인 기지를 건설하고 2025년에 달의 암석을 지구로 가져올 예정

○ 20~30대의 60% “결혼해도 아이 필요 없다”

- 내각부에서 조사한 ‘남녀 사회의식조사’에서 ‘남편은 밖에서 일하고, 부인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’ : 55.1%, ‘여성은 아이가 생겨도 자기 직업을 지속해야 한다’ : 45.9%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○ 외국인 회사채투자 비과세 혜택

- 기업의 자금 조달 숨통을 터주기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회사채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
- 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해외 투자자들의 회사채 이자 소득세에 대해 면제 혜택이 있으며 미국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 비중이 24%, 영국은 61%에 달한 반면, 일본은 회사채 이자소득에 15%의 세금을 부과해 왔으며 투자자 비중이 0.6%에 불과함

○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 50%대로 하향

-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59%로 한 달 전 조사 때의 63%에 비해 4%포인트 하락
- 오키나와 후텐마(普天間) 미군 비행장 이전을 둘러싼 미일 갈등과 내각의 불협화음,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총리의 설명 부족,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 등 하토야마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 때문임
- 한편 예산공개심의(행정쇄신회의)에 의한 예산 재편성 작업에 대해서는 71%가 '긍정적으로 평가한다'고 응답하여 압도적 지지

○ 사무차관제 폐지 추진

- 일본 정부가 정치주도형 국정운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성청(부처) 직업 관료의 최고위급인 사무차관직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
- 찬성자는 아카마츠(赤松広隆) 농림수산상 뿐이며 다른 장관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

○ 여당의원, 일등석 금지

- 민주당·사민당·국민신당 의원들은 해외 출장 시 항공기 일등석을 이용할 수 없으며 대사관 등 방문국 재외공관으로부터 접대도 받지 못하게 되었음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산업계 미국, 중국의 온실가스 삭감목표 인상 요구 (12/10)
 - 미타라이 경단련 회장은 UN COP15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서 미국, 중국의 온실가스 삭감목표가 비용대비 아주 낮다고 지적
 - 온실가스 배출량 1, 2위를 차지하는 중국, 미국에 대해 성의 있는 대응을 호소
 - 경단련은 이날 2020년까지의 저탄소사회 실행계획도 발표하였으나 첨단기술을 도입하여도 하토야마 총리가 공표한 25% 삭감은 힘들 것으로 예상
- 중소기업 법인세 재검토
 - 세제조사회(회장 후지이 재무상)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는 2011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결정
 - 민주당은 법인세를 18%에서 11%로 낮추기로 공약했으나 경산성은 대체재원을 확보하지 못했음
- 긴급경제대책회의서 경산성관련 추경 결의 (12/8)
 - 경제대책으로 7.2조엔 추경 결정되었으며 경산성관련 시책이 발표됨
 - 경제대책 실행을 위해 고용, 환경, 경기 분야에서 경산성은 관련시책을 담당 (자세한 내용은 '보고서 리뷰' 참조)
- 내각부, 종합과학기술회의 개최 (12/9)
 - 하토야마 총리가 의장직을 맡고 있는 종합과학기술회의 소집, 예산공개심의에서 차세대 슈퍼컴퓨터사업 등 과학기술 분야 사업은 '삭감' 대상이 된 반면, 종합과학기술회의서 '추진' 대상사업으로 선정
 - 간 나오토 부총리는 양 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을 시사
- 특허제도연구회 보고서 발간 (12/8)
 - 올해 1월 26일부터 설치된 특허제도연구회는 총 9회 실시, 특허 활용 촉진 및 특허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서 발간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‘경제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7.2조엔 편성’, 일본경제신문, 2009.12.08

-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은 경제대책으로 7.2조엔을 추경 결정, 이를 반영하여 2010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
- 구체적 경제대책 및 예산을 보면 경기부양 및 지방지원 대책이 70%(약 5조엔)를 차지
 - 고용 : 약 6,000억엔
 - 고용조정조성금 요건 완화(12월 실시)
 - 사원 숙소를 긴급일시숙박시설로 설치하는 등 빈곤자 지원 강화
 - 보육서비스 확충 및 모자가정의 재택취업 지원
 - 환경 : 약 8,000억엔
 - 친환경 가전제품의 에코포인트 제도 9개월 연장
 - 주택용 에코포인트제도 창설
 - 재생가능에너지 재구입제도 도입 검토
 - 백열전구를 2012년까지 친환경 램프로 생산 전환
 - 경기 : 약 1조7,000억엔
 -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‘경기대응긴급보증’ 창설
 - 주택금리 시한적 인하(인하율을 0.3%에서 1.0%로 확대)
 - 생활 : 약 8,000억엔
 -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강화 등
 - 지방지원 : 약 3조2,000억엔
 - 지자체의 인프라 정비 지원
 -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지원
- 경기회복을 위한 이번 경제대책에 대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여 내수주도형 경기회복을 촉진할 대책으로서는 효과가 미약하므로 하토야마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
 - 노무라 : 경제 대책에 의한 국내 총생산이 증가분은 0.2% 정도로 미약